

충남인 여성인

Vol. 35

여성평등

- 다양성 + 차이의 인정과 다름의 수용
- 형평성 +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
- 포괄성 +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계획 수립





2016년, 충남에 행복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충남양성평등 비전 2030의 기초를 다지며 큰 꿈을 품었습니다.
충남 여성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생생했던 순간들을
[충남인여성in]이 담았습니다.



Contents

2016 충남인여성인 Vol. 35

충남여성을 만나다

- 004 원장님메시지
- 005 축하메시지

- 012 여성플뿌리자치학교
- 016 충남여성 플뿌리 성장 프로젝트
- 020 도약을 위한 준비
- 024 여성, 내일을 구하다
- 028 충남을 움직여라
- 030 배움을 통한 변화
- 034 이곳에서 배운다
- 040 충남 젠더 거버넌스를 말해보자
- 044 소통, 또 다른 힘이 되어
- 046 선진지 탐방 스케치

그래서 더 특별한

- 050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그리다
- 충남양성평등 비전 2030 -

충남여성 힘 더하기

- 060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걸어온 길
- 062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 066 성평등 충남을 위한 노력
- 074 언론에 비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인 여성in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간 소식지



한 해를 보내며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분주할지 알지만 계룡산 자락에 쌓이는 눈을 보며 잠시 쉬를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평안하신지요?

2016년 새해를 맞으며 했던 인사가 저 멀리 아득하게 보내져 다시 되새김을 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많이 더웠고, 스산한 정세 속에서 마지막 남은 달력도 끝이 보입니다. 차라리 '새로 오는 해를 격하게 마주하며 희망이라는 꿈을 꾸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초석을 다지며 현 시기의 혼돈을 정면으로 뚫고 왔다고 자평합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충남도민, 특히 충남의 여성들과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잘 다듬고 색을 입혀 내놓을 수 있어 기쁩니다.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비전으로 삼아 충남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가는 과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젠더기반 혁신과 동등한 참여, 돌봄생태계의 조성,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 자원배분의 성별격차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의 5대 목표를 근간으로 10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만들어 도의 향후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이 미치도록 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충남 양성평등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남의 낮은 성평등 수준 속에서도 앞서 교육받고 공동체를 고민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충남 여성들. 여러분의 희망을 싹 틔우고 꽃을 피워 맺은 열매를 도민들이 고르게 가져가는 충남의 미래는 상상속의 것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폭염을 뚫고 풀뿌리 자치학교를 완주한 절실함으로,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힘든 관의 문을 두드린 용기로, 도정의 젠더혁신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는 충남의 여성들과 함께 비전을 완성해 나간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2016년의 마지막은 모두의 가슴 속에 정의로움과 평등을 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인정받으며 배제되지 않고, 모든 이의 삶이 역사에 바르게 기록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2017년 첫 장에 환한 태양의 빛과 따뜻함을 가득 담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한 해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민 여러분께 소개하는 「충남여성in」 발간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지난 1999년 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도 여성정책은 점차 도정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단순한 정책수혜의 대상이 아닌 도정의 참여자로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안정선 원장님과 연구원분들, 또한 각 지역에서 활동해주시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여성과 인권을 통해 도정을 돌아보겠다’ 선언하고 양성평등한 충남을 만들어 도민에게 행복한 변화로 다가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양성평등 비전 2030」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관 주도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젠더거버넌스」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정 운영과, 그동안 남성중심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과 권익을 여성정책개발원의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의 각 분야에서 참여와 소통에서 비롯되는 양성평등한 충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여성in」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입니다.

양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연구사업 및 교육활동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충남인여성in」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 소식지가 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여성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여성·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지역 여성정책의 싱크탱크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여성인재 양성과 양성평등 기반 구축,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연구를 확대 강화하여 충남여성들이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성정책개발원이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하여 충남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아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남인여성in」 발간을 축하합니다.

충남 여성을 만나다

여성풀뿌리자치학교 |
충남여성 풀뿌리 성장 프로젝트 |
도약을 위한 준비 |
여성, 내일을 구하다 |
충남을 움직여라 |
배움을 통한 변화 |
이곳에서 배운다 |
충남 젠더 거버넌스를 말해보자 |
소통, 또 다른 힘이 되어 |
선진지 탐방 스케치 |

우리 함께 소리 높여봐, 여성이 행복한 내일이여!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2016년 풀뿌리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수한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월 2일 무창포에서 진행된 1박 2일간의 워크숍. “지금껏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다 이번 풀뿌리자치학교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그간 일어난 내면의 변화와 포부를 감격스럽게 전하며 서로를 독려하기도 했다.

함께 하기에 든든한, 그래서 희망이 있는 열정의 현장을 찾았다.



소리 높여 외쳐! 여성이 행복한 내일이야!

2016년 풀뿌리자치학교 워크숍이 지난 9월 2일 무창포 비체펠리스 소연회장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수료생들이 모여 그간의 노력을 함께 축하하고 교육에 집중하느라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학위를 주는 과정도 아니고, 취업을 하는 과정도 아님에도 오로지 지역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수료 후 여러분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주변을 둘러본다면 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 보이는, 새로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안정선 원장의 응원이 담긴 인사가 끝나자 지난 6주 동안 개근한 교육생들을 위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 어떠한 댓가도 없이 그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 하루도 안 빠지고 교육에 참석한 수상자들. 안 원장은 뜨거운 포옹으로 이들을 격려했다.

“풀뿌리자치학교를 통해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어요. 상도 받고, 선물도 받고, 숙박까지 해결하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감사합니다.”

2



“수료 후 여러분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주변을 둘러본다면 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 보이는, 새로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3



4



1 소통과 리더십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료생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2 안정선 원장이 수료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3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개근한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4 그림,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 소통의 다양성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소통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날 첫 강연의 주제는 '소통과 리더십'으로 풀뿌리여성센터 박영미 대표가 진행했다. 풀뿌리자치 활동을 하며 어려웠던 점과 개선할 점, 풀뿌리자치학교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수자들은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 소통의 방법과 중요성을 알아간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보통 4초 동안의 첫인상과 4분 동안의 대화로 사람을 단정 짓는다고 합니다. 간혹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경우, '다름'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이날 참여자들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유대감을 쌓고 또 공동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든든하고 용기가 생기는 것도 '혼자'가 아닌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마음을 전해요!

강의가 끝나고 소주 한 잔 곁들인 저녁 시간, 이들의 대화는 더욱 무르익는다. 가정과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가 똑같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의 기로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다시 한 번 힘을 얻는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지역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유머경영연구소 한명환 대표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참여자 간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미 대전과 충청권 지역에서는 유명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로 명성이 자자한 한 대표는 참여자들이 모이는 동안 '광화문 연가'와 '백만송이 장미'를 색소폰으로 연주하며 무창포 앞바다를 감성적인 분위기로 물들였다. 애상에 젖었던 마음도 잠시, 한 대표 특유의 유머있는 해설과 진행으로 강의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특히 메모지에 적은 덕담 교환 게임과 팀별 빙고 게임은 그동안 잘 몰랐던 참여자들끼리 이름과 얼굴을 익힐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단합되는 시간이었다.



1 조별 토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 지난 해 풀뿌리자치학교 수료생들과 함께 간배를. 여성이 행복한 내일이야 3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감상에 젖기도 했다

충남여성의 미래, 바로 여기, 그리고 우리 손으로 2016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지역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 같은 고민을 해왔던 여성들이 이제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즐거운 여정,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를 소개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2016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를 진행했다. 7월 12일부터 6주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교육을 진행하며 1박 2일 워크숍을 끝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3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각 지역 여성 리더의 지방자치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풀뿌리자치학교는 작지만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선 원장은 개강에 앞서 인사말에서 '여성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충남도에서 성평등한 도정실현과 지역 여성의 위상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교육의 프로그램은 Action Plan A, B, C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며 Action Plan A 과



정에서는 성인지젠더감수성에 기초한 성인지 정책의 이해, 지방자치와 여성 그리고 예산이해과정으로, 섹션별로는 여성노동, 교육복지, 여성인권, 환경, 농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을 맡은 강사들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충남 여성리더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해 알찬 강의를 선보였다. 마지막 과정인 Action Plan C에서는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이수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안정선 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인 만큼 작년에 참여했던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단단한 모습으로 교육이 준비되어 기대가 크다' 며, '앞으로 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역여성 리더들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교육생들을 위한 심화교육 역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충남여성풀뿌리 성장프로젝트

지역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여성의 행복을 이끄는 여성풀뿌리소모임.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부터 충남여성풀뿌리 성장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업에 선정된 6개의 소모임은 지역 여성의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 성평등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숨겨진 6개월을 보내왔다. 겨울이 점점 깊어지는 지난 12월 9일 6개의 모임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뜨거웠던 지난 시간에 대한 기록을 들춰봤다.



천안 꿈다리

사업명: 꿈꾸는 여성 바람 불다

‘찾아가는 강좌’, ‘성인지 강좌’, ‘꿈다리 수공예품 전시회’ 까지 총 세 가지 주제로 활동했다. 찾아가는 강좌는 진행자에게는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되고, 수강자는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성인지강좌는 일상 속 성불평등을 주제로 지역 여성에게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줄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 강좌를 통해 많은 참여자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불평등과 편견을 발견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했다. 앞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개인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꿈다리 수공예품 전시회는 이웃과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전시회를 통해 들어온 수익금을 지역 단체에 전하며 지역 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산 아사마

사업명: 아산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마을 탐방

경제 취약 계층과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자아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키우고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다. 재터먹이 마을탐방, 성평등 교육, 토론의 장까지 세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터먹이 마을탐방은 이윤과 효율성 중심의 경제원칙에서 벗어나 주민 간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신명나고 재미있는 농촌 문화를 복원하려는 뜻에서 진행했다. 성평등 교육은 성평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참여 여성이 자아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법에 대해 배웠다고 후기를 전했다.

생태문화공동체 마즐

사업명: 목화꽃과 함께 피는 마을이야기

지역 여성들이 힘을 모아 아산시 터미널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은 텃밭에서는 목화를 비롯해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는 이 마을은 근처 아파트에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 이번 활동은 마을 탐방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천천히 해나갔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할머니들과 교류하며 마을 이야기와 여자로서 할머니의 삶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천연염색을 직접 배운 후 손수건을 만들어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옷두기, 고누놀이 등의 전래놀이를 함께 하며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회색빛 담벼락을 천연페인트로 칠하고 따뜻한 날에는 할머니들이 바깥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평상도 만들어, 삭막했던 마을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나갔다.



청양 뿌리를 찾아 공부하는 모임
사업명: 보령 여성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팜파티, 견학, 음식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여성 농가인을 찾아'라는 행사에서는 함께 포도를 따고 잼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소모임 회원 간에 화합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북한 이탈자와 다문화 가정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는 서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령 역사 속 여성들을 만나다'라는 행사는 역사에 기록된 보령의 여성 위인들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탐방 행사로 도미부인 사당, 영보정, 오속근 여사 유족지 등을 돌며 여성으로서 지역에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서산풀뿌리여성연대 '옴니버스'
사업명: 여성, 지역에서 돌아보세

지난 해 성장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서산풀뿌리여성연대'가 4개의 소모임으로 새롭게 조직해 '서산풀뿌리여성연대 옴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올해도 참여했다. '서산'이라는 버스를 타고 한마음으로 달린다는 의미에서 '옴니버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이 단체는 상설이 아닌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체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 보호, 이웃과의 소통을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모임이 탄생하고 기존 모임의 회원 수가 늘는 등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동안 정체됐던 회원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다시 한번 모임의 연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교류를 통해 신생 단체는 경험이 많은 단체의 노련함을 배우고 경험 많은 단체는 신생 단체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청양 여성 꾸벅이 길동무

사업명: 여성, 지역에서 길동무를 만나다

‘청양 여성 주간’ 행사를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했다. 그 첫 시작은 ‘우리가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이유’라는 간담회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팜파티 때 나눠 준 20여 종의 토종 종자의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청양지역 토종 종자 지킴이 북정안 강사를 초대해 청양 지역의 토종 종자 분포와 재배 방법에 대해 듣기도 했으며, 쥐 이빨 옥수수라는 토종 종자로 팝콘을 튀겨 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할머니와 란제리’라는 여성 영화 보기와 영화 평론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여성의 일생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도 했다. 셋째 날에는 ‘당신의 청양살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육아, 교육, 귀농·귀촌, 로컬 푸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모둠 토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박상우 전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모두가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고 오늘 소개한 자료를 모두 기록해 앞으로 좋은 사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충남 지역의 여성 전문강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공공학습, 공공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했고, 전문 강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큰 시너지를 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지역의 숨은 인재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소모임의 활동을 다른 지역의 사업과 연계한다면 더 멋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날 행사에서는 청양 지역 소모임간 소통할 수 있는 밴드 개설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뚜벅뚜벅 우리 지역을 걷다-생태트래킹’을 진행해 참여자가 함께 칠갑산을 걸으며 우리 지역의 환경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지역을 바꾸는 여성들

여성의게 발굴에 나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2016 **여성의원 워크숍**에서는 '여성의원이 지역을 바꾼다'는 주제로 충남의 성 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충청남도 지역 성평등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성인지 정책 강화를 위해 서로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강한 여성의원으로 거듭나기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충남 여성의원들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모여 1년에 한 번씩 연찬회와 워크숍을 가지며 지역의 성 평등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해왔다.

그 첫 단계인 2014년,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 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로 이를 의정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두 번째 단계인 2015년에는 여성 의원들이 시·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발언자료 작성 방법**에서부터 말하기, 보도자료 활용 방법까지 배우는 **컨설팅**의 기회를 가졌다. 2016년 2월 15일에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 의원들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는 3, 4단계 과정을 진행했다.

66

이제는 환경 보전이나, 인권보호, 사회적 소수자의 정책 참여 등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지역 현안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99



2016년 여성의원 워크숍 스케치

2016년 2월 15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안정선 원장의 환영 인사로 그 서막을 열었다. 안 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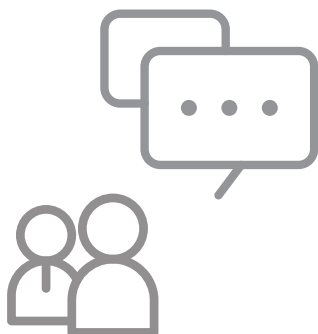
“올해는 여성, 소수자 인권의 관점으로 도정을 재점검하겠다고 안희정 지사가 신년 화두로 밝힌 바, 충남 도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선 원장은 이날 워크숍의 의의를 되새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충남도의 성평등 상황을 점검하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충

남을 위해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오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임우연 센터장이 ‘충남 성평등 현황 및 의제 발굴’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성평등 수준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많은 여성의원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16개 시·도 중 충남이 14위를 보건과 안전 분야에서는 1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충남 여성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존에 대두됐던 지역 문제가 환경오염이나 주거문제, 삶의 질 저하 등이었다면 이제는 환경 보전이나 인

권보호, 사회적소수자의 정책 참여 등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지역 현안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후에는 성북구의회 목소영 의원이 ‘의정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목소영 의원은 재선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목 의원은 지역의제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원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충남의 여성의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여성의원 3인과의 미니 인터뷰

오전에 진행된 충남 성평등 현황 진단이 끝나고 20여 명의 의원들이 향후 대책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여성의원으로서의 애로 사항, 이를 극복하는 방법,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에서 많은 의견을 제안했던 김연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 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을 잠시 만나 오늘 워크숍을 통해 충남 여성의원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여성들의 단합과 자신감 회복이 우선

김연 충청남도의원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여성의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나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 충남 지역의 성차별의 심각성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문제의식을 잊지 말고 의사결정 현장에서 어필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지요.

충남 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결과에 대해?

우리 지역이 성평등 수준은 최하위이지만 경제적인 수준은 꽤 높은 편이라고 나왔어요. 일하는 여성은 많지만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기는 힘들다는 얘기지요. 여성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충남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성과 소수 약자를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의원들의 단합된 마음입니다. 각 의원들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며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의원들의 모임과 배움의 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다양한 사례 공유 필요

최선경 홍성군의원

오늘 여성의원 워크숍 참여 후 소감은?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가 되고 배우는 부분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토의한 내용이나 강의 내용을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최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 소수자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단체들을 아우르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 지역의 성평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나요?

많은 여성의원들이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방법이나 발언하는 방법 등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를 위해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해요.



공부하는 여성이 지역을 바꾼다

이기에 아산시의원

오늘 워크숍에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발언하셨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었나요?

강의에서부터 토론, 사례 공유까지 알찬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이 더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또 토론을 통해 서로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충남 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여성의원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성의원들의 의회 참여율을 높여야지요.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비례로 뽑힌 여성들이 기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점들과 대책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개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선배 의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활용해야 합니다. 여성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피력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하고 남성의원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성의원들을 위해 여성정책개발원이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의원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해요.



여성, 내일을 구하다!

제2회 충남 풀뿌리 여성대회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남 여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정 안에서, 마을 안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왔던 풀뿌리소모임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친목을 다지는 홈커밍 페스티벌인 충남 풀뿌리여성대회를 3월 9일 진행한 것. 이번 행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손잡는 계기가 되었다.

1 대회 시작 전 각 소모임의 활동 사진을 벽에 소개하고 스티커를 붙여 잘된 모임을 선정하기도 했다 2 어느 소모임에서는 다과를 준비하기도 했다 3 안정선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풀뿌리 소모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은 뿌리의 잠재력을 모으다

지난 3월 9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여성, 내일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제2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를 진행했다. 지역여성들의 활동을 공유해 참여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마다 소모임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청중들과 함께 충남의 행복한 내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회 시작 전 대강당 입구에는 각 지역의 풀뿌리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가 전시됐다. 잘 만든 풀뿌리 모임의 포스터에는 ‘좋아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행사 시작 전부터 각 지역 풀뿌리 모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드디어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사회로 행사 1부 개회식이 진행됐다. 이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풀뿌리 소모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풀뿌리 여성의 활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활동이야말로 우리 생활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원천입니다. 지역 여성의 이야기들이 공론화되어 정책과 맞닿을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2부는 사례 발표 및 나눔의 시간으로 활동사례와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 시간에는 권경숙 서산풀뿌리여성연대 대표를 비롯하여 5개 팀이 발표를 했다. 권경숙 서산풀뿌리여성연대 대표는 ‘가로림만, 물범 만나러 가요’라는 주제로 갯벌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보람을 이야기했다. 청양 행복여성네트워크 양수영 대표는 ‘여성, 부엌에서 지역과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농촌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지역의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팜파티’를 열고 ‘내 지역 걷기 운동’을 통해 느꼈던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 놀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경선 소장은 몸이 불편한 자신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본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제 그의 일상이 돼버린 카메라. 그는 ‘숨은 그림찾기’라는 소모임을 조직해 장애인들과 함께 사진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다며 그 설렘을 전하기도 했다. 복아



1



2



3

1,2 각 소모임의 발표자들은 영상과 사진으로 자신의 모임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3 참석자들은 발표자가 소개하는 소모임의 활동 사항에 귀 기울이며 오늘 행사에 집중했다

1 각 모임의 소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들이 나와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2,3 퀴즈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4 지역 가수의 공연과 단체 합창 시간에는 모두가 노래로 하나가 되었다



영 청춘소리 대표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은 물론 오늘날의 청년이 가진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삶의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각 모임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크콘서트는 모임의 활동을 소개한 5명의 발표자와 사회자가 나와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의 발표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다양하게 오고갔다. 차경선 소장은 ‘장애’와 ‘배려’라는 단어에 담긴 뜻을 되새기길 당부하기도 했으며, 전말숙 아우누리(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1기생 모임) 부회장은 여성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배움과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고 하며, 풀뿌리여성대회와 같은 행사에 자주 참여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움직인다!

토크콘서트가 끝나고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에도 그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특히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각모음과 청춘소리”의 축하 공연과 ‘도전! 충남 골든벨’ 게임 시간에는 참

석자들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함께하고 있었다. 천안NGO의 강윤정 센터장은 “행사 자체가 화려하진 않아도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단체가 여럿 모여 활동을 소개하니 너무너무 신이 났다”라며 “앞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지역 여성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공주여성리더모임의 이상미 씨는 “2회째 참여자로서 1회 보다 서로의 경험을 많이 공유한 것 같아 좋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다루며 함께 고민하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공감과 소통의 징검다리 SNS 홍보 서포터즈단 발대식



봄이 무르익는 4월, 이곳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변에도形形色색의 꽃들이 피어나 곱디고운 수를 놓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풍경에 화창한 하늘까지 더해져서일까. 오늘에서야 처음 만나는 서포터즈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설렘이 가득하다. 성 평등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행복한 충남을 구현한다는 굳은 의지로 뭉친 15명의 서포터즈들. 열정과 패기로 연신 화기애애했던 발대식 현장을 따라가 봤다.

쌍방향 소통을 통한 긍정의 효과

4월 15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에서는 제1기 서포터즈발대식이 진행됐다. 15명의 서포터즈단은 선발된 이후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맞이했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들 가운데 몇몇은 SNS를 통해 이미 친분을 쌓고 있었다.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여하신 분들 중 아홉 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논산에서 지역 사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공미정 서포터즈는 SNS 상의 친분이 실제로 이뤄진데 대한 기쁨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반가운 마음을 뒤로 하고 장내를 정돈한 후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대식이 시작되었다.



“우리 서포터즈들이 지역 속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담아주면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를 귀담아 듣고 연구와 교육을 고민해서 할 것입니다. 상상력과 추진력,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서포터즈들과 함께 해서 기쁘며 앞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정선 원장의 기대와 설렘 가득한 메시지에 서포터즈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간다!

곧이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경하 연구원의 사회로 서포터즈단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안정선 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고, 위촉장을 받는 단원들의 얼굴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수여가 끝나고 김영주 기획조정실장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혁과 사업내용, 서포터즈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소개했다. 서포터즈는 2017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다양한 소식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충남도민과 공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15명의 서포터즈들은 이날 모임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한껏 힘을 얻어 앞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서포터즈 미니 인터뷰



성유나 서포터즈(홍성)

농촌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장애 여성, 일반 여성, 경력 단절 여성,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농촌 노인들에 대한 활동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차경선 서포터즈(논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이고자 이번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8년 동안 장애인협회나 센터의 일을 많이 해왔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어 여성정책개발원의 문을 두드리고 성인지 교육이나 센터 등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서포터즈(홍성)

아직 여성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충남의 여성정책에 대해 알차게 공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성평등 정책 실현의 교두보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특정한 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의 차이와 특성·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도구를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전문가인 컨설턴트는 성평등 관점에서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사항을 파악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은 유능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충청남도의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 과정 중 10번째 강의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례 연구' 교육에 참관해 정책 현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



성평등 정책의 길라잡이, 컨설턴트

우리 삶 속에 과연 성평등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의 10번째 강의를 진행하는 박홍주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이날 강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의 문을 열었다.

“공공 기관에 설치한 투명 계단을 한번 볼까요? 외관상으로는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무척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여 불안한지 난간을 꼭 잡고 이동을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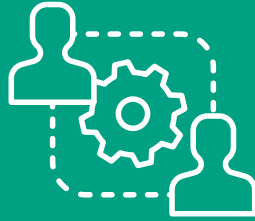
주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찾는 문화 공간에 설치한 이 계단은 사람들의 이용 횟수가 점점 줄었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더라면 이같은 결과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담당 공무원과 젠더전문가로서의 컨설턴트, 이를 조직하고 연계하는 지원 기관인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라는 세 주체가 협업하는 체계로 이뤄진다고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는 어떤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에 적절한지 1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해당 과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필요성을 알리고 분석평가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이날 교육에서 박 센터장은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있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컨설턴트는 상담을 진행하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업의 시작과 종료 연도를 파악해 이에 맞게 컨설팅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료 연도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컨설팅 지침에 따라 사업 내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한다. 종료 연도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이에 맞게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한다. 담당 컨설턴트가 중점 사업 및 중요 사업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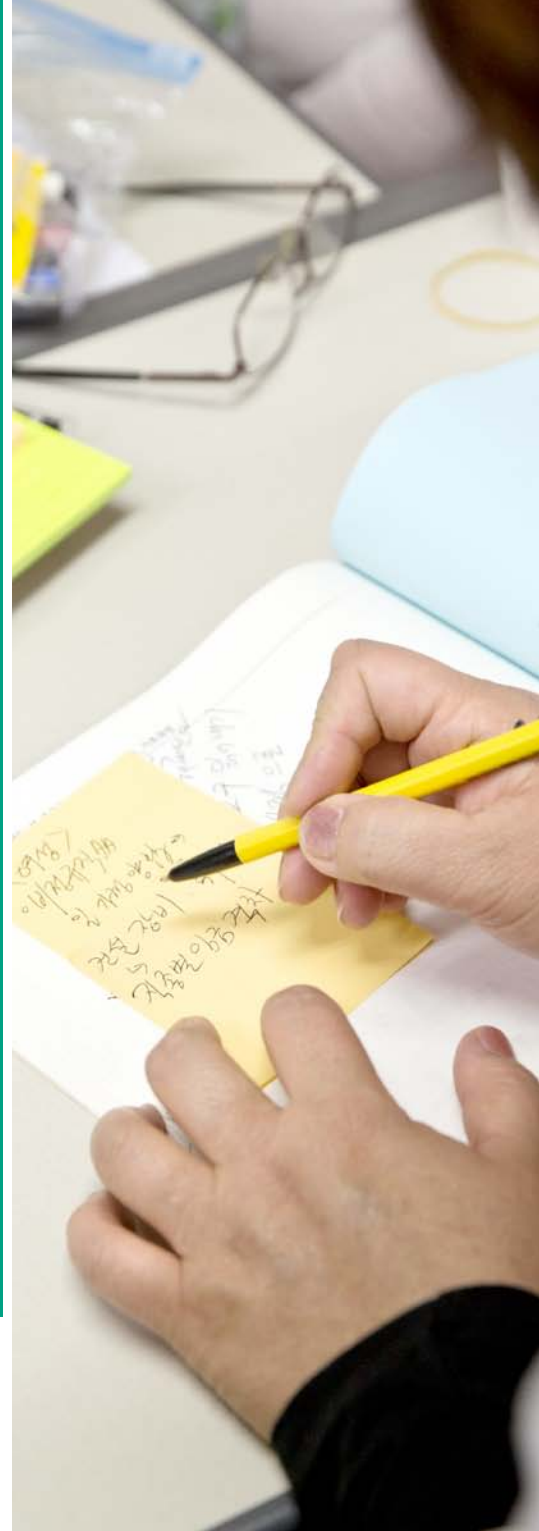


6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는 어떤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적절한지 1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해당 과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을 알리고 분석평가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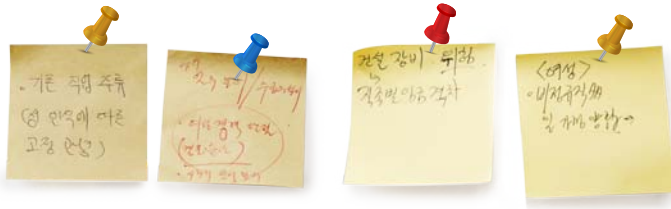


66

자발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도 사업 모집단의 성별 비율 대비 사업 수혜자의 성별 비율을 분석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99





체의 세출명세서 상의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대부분 단위 사업 내에는 여러 세부 사업이 있다. 단위 사업 내에 여러 세부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 담당자가 작성한 사업 개요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근거 자료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성별 요구도나 성별 형평성에 대한 분석 등 근거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을 가지는데 컨설턴트가 관련 자료나 통계를 직접 찾아주기보다는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아닌 작성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이 시기에 적절하고 내용이 구체적일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관련 사업의 예산을 고려하고, 관련 사업의 위원회의 성별 구성비율이 어떤지 또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사업 분야에 따라 컨설팅 전략도 새롭게

박홍주 센터장은 컨설팅을 할 때 각 사업 분야에 따라 유의할 사항들도 다양하다고 한다.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성별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성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지요.”

이 같은 자발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도 사업 모집단의 성별 비율 대비 사업 수혜자의 성별 비율을 분석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업분야 관련 사업의 컨설팅 시에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요소가 없는지, 여성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After Program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수료

지난 5월 11일에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의 ‘완주’를 축하하는 수료식이 열렸다. 15명의 교육 수료자는 이미 여성농업인으로 학부모 모임 이끔이로, 평생 교육 강사로 또는 공공보육 전문가로 도내 각 시군에서 ‘삶 정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수료생들은 휴일까지 반납하며 7일 간의 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친 서로에게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산지역아동센터
박영란 대표

“성인지적 관점이 생겼고 개념적으로도 많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일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

“이번 교육의 뜨거운 열기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현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 여성들이 충남도의 성평등 정책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성미산에서 찾은 꿈, 풀뿌리선진지 탐방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더니 이른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래도 선진지 답사에 대한 기대와 서로 오랜만에 만난 기쁨 때문인지 16명의 풀뿌리 소모임 활동가들은 맑게 갠 하늘만큼이나 밝다. 오늘은 지도에는 없지만 이미 입소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성미산 마을을 방문하는 날. 육아에 대한 여성의 고민에서 시작했다는 마을 유래가 풀뿌리 활동가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한다. 22년 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꿔던 꿈, 지금은 어디까지 이뤄졌을지 오늘 탐방에서 알아봤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꿈의 공동체

봄비답지 않게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날이지만 약속했던 인원들이 모두 출발 장소에 모였다. 이번 탐방은 충청남도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세 명 이상의 소모임을 꾸리고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위한 기회로 마련했다. 성미산 마을이 자리한 마포구 성산동에 도착하니 막 점심때가 됐다. 16명의 참여자들은 성미산밥상에 들러 유기농재료를 차려진 건강식 뷔페로 푸짐하게 점심식사를 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정성을 다해 대접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매일매일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식단을 선보이고 있다.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모든 음식의 뒷맛이 깔끔하고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하다. 특히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에 따라 메뉴가 다른 것도 이곳만의 큰 매력이다.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려다 보니 처음에는 적자 규모가 꽤 컸어요. 마을 공동체에서는 규모를 줄일까도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점심 뷔페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고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식사 후 오늘 탐방의 가이드이자 (재)사람과 마을의 길눈이 팀장인 사슴님이 성미산밥상의 운영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식사 후 성미산밥상 근처에 자리한 울림두레생협에 잠시 들렀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가게로 현재 9천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3 성미산밥상은 건강식 뷔페로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1 비가 오는 날이지만 소모임 활동가들은 환하게 웃으며 성미산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2 울림두레생협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가게로 현재 9천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3 성미산밥상은 건강식 뷔페로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갈등 속에서 답을 찾다

이어서 시작된 성미산마을에 대한 소개 시간. 성미산마을은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특별한 경계가 없다. 대개 망원동과 성산1동, 연남동, 서교동 주변 주민들이 성미산 마을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처음 마을을 이루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엄마들의 바람이 한데 모였고 그때 찾은 답이 바로 '공동육아'였다. 이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을 개설해 직접 운영에 참여했다. 어린이집을 통해 한데 뭉친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또 서로가 자주 교류하다보니 찻집과 생필품을 나눌 수 있는 가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70개에 이른다고 하니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마을 주민들이 쌓아온 깊은 유대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함께 하다보면 갈등의 순간도 있기에 마련. 누군가 사슴님에게 '이웃 간 사이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곳도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며 싸우고, 그리고 푸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공동체 생활도 가능한 것 같아요.”



1 공동주택 소행주 내에 있는 수공예품 매장. 소행주는 구성원들이 지은 공동주택으로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2 길눈이 팀장인 사슴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소모임 활동가들

“성미산마을은 지역적인
경계 없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인 만큼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분명
마을은 다시 조성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와
공동체를 위해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66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며 싸우고,
그리고 푸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99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준비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과의 조화도 고민해야 한다. 축제
를 기획한다거나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
하는 행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얼마 전에 시작한 ‘마포희망
나눔프로젝트’는 마을 주민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동
체 회원들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십시
일반 돈을 보아 복지관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홀몸어
르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마을 복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하는 과정 속에서 화합을 이끌어 낸 것
이다. 최근 성미산마을 주민들은 마을
의 지속과 유지에 대한 쟁점을 두고 많
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흥대나 연
남동 등 주변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마을의 공동체가 거주하는 공간의 임대
료도 매년 올라 존속 여부가 논의될 정
도의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성미산마을은 지역적인 경계없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인 만큼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분명 마을은 다
시 조성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
지만요. 공동체 내에서 더 많이 고민해
봐야할 문제예요.”

언젠가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
다 해도 현재의 마을을 평화롭게 유지하
는 것이야 말로 주민들의 관심 현안이
다. 함께 하는 동안은 서로 양보하며 각
자의 개성을 받아들인다면 분명 언젠가
일어날 공간의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
리라 믿기 때문이다.



성미산마을에 대한 명쾌한 소개가 이어진 후 6시간 가량 마을 탐방을 진행했다. 성미산학교-공동주택-공동어린이집-생협매장-되살림가게-소풍가는 고양이-개똥이네책방 등을 둘러보며 공동체 삶의 가치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성미산학교

제일 먼저 둘러 본 성미산 학교는 재학생이 50여 명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은 '사람간의 관계'를 우선으로 배우며 이웃을 배려하는 기쁨과 나눔의 가치를 알아간다. 비록 검정고시를 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다시 따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찾아 이사를 올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성미산어린이집

다음으로 찾은 성미산어린이집은 22개월부터 만 6세까지 다닐 수 있으며 교사와 부모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교육한다. 매일 한 시간 이상

씩 나들이를 나가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을 벗 삼으며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배운다.

소풍가는 고양이

소풍가는 고양이는 도시락 배달 사업을 주종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전문 요리사까지 영입하여 제법 크고 안정적인 도시락 및 케이터링 전문 업체이다. 나이와 직위를 불문하고 직원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모두가 열정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문량에 맞춰 신선한 식재료를 지역 상권 내에서 구매해 최상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소행주는 소통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는 마음으로 지은 공동주택이다. 성미산마을의 지속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주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한 것. 입주자 참여형 건축방식으로 일종의 DIY형 집짓기

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로부터 한 평(3.3m²) 금액의 돈을 모아 마련한 공동 공간은 지역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개똥이네 책방

성미산마을 공동체에서 만든 출판사가 운영하는 서점으로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주택을 개조해 만든 이 공간은 1층에서는 책을 팔고 2층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줌마네 이숙경 대표와의 만남

마지막 탐방 코스인 개똥이네 책방에서 ‘줌마네’ 이숙경 대표와의 간담회 시간이 주어졌다. 줌마네는 여성들의 자립과 예술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2001년 이숙경 대표가 설립한 글쓰기 교실로 현재는 글쓰기 외에도 영상, 드로잉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줌마네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허심탄회하게 소개하며 여성의 자립과 현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줌마네에서 글쓰기를 익히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여성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도 했다. 또한 토론을 나누며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 풀뿌리소모임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탐방에 참석한 활동가들의 대다수가 집중력 있게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굳은 의지가 내비쳐지기도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와 공동체를 위해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충남 지역의 풀뿌리여성소모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젠더거버넌스를 말해보자

충남의 성평등, 민·관이 함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7주년 기념 세미나

충청남도의 낮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가 젠더의 관점으로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민과 관이 정책 입안부터 평가까지 함께 진행하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젠더거버넌스'라 부른다. 지난 6월 27일 열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봤다.





젠더 거버넌스, 절실합니다!

‘충남의 젠더 거버넌스를 말해보자’라는 주제를 내건 이날 세미나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윤종인 행정부지사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공무원, 여성·시민단체 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버넌스는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고, 거버넌스 완성의 속도를 높이려면 젠더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

는 충청도가 만들고 있는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안정선 원장은 이 같은 환영사를 통해 이날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성평등 실천을 위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세미나 참가자들도 ‘충남여성 파워팅’을 외치는 기념촬영으로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여는 발표)는 풀뿌리여성센터 박영미 대표(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맡았다. 박대표는 ‘성 평등한 충남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젠더 거버넌스의 과정과 배경, 그 필요와 한계 등을 설명했다.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충남은 2012년 이후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기초의회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낮습니다. 그만큼 충남의 젠더 거버넌스는 절실합니다. 불만을 누르지 말고 많이 말해 젠더 이슈를 공론화해야 하고, 이런 자리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돼야 합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박영미 대표의 발제에 이어 2부 모듬토론 ‘충남 젠더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 진행됐다. 모듬토론 좌장인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김종남 대표는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듬토론 참석자들은 모듬별 이름과 이꿈이·기록이·알림이·칭찬이 등의 역할을 정한 후 토론을 시작했다. 토론은 총 8개 모듬으로 나눠 진행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당초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모듬토론은 종료시간이 두 번이나 연기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8개 모듬에서는





거버넌스 인식 부족과 역량 부족, 여성 리더 발굴의 어려움, 홍보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모듬별 알림이들은 단상에 나와 생애주기별 젠더 교육, 성평등 시·군 평가 반영, 참여기구 확대, 정기적인 홍보,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모듬별 발표에 이어 진행된 참석자 투표에서는 시·군 평가 반영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여성 비율 확대, 여성리더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등 행정적인 방안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연대를 통한 자체 역량

강화 등 시민사회 영역의 방안도 주목 받았다.

“참석자들의 역동성이 있었기에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족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젠더 거버넌스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도 아직 완성이 아닌 과정입니다. 조금 더 훌륭한 과정을 만들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같은 안정선 원장의 폐회사처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7주년 기념 세미나는 충남 성평등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와 함께 발전에 대한 설레는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2016년을 보내며 내가 느낀 감동

교육생에게 듣다

충남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16년. 그 동안 여성 정책개발원과 함께 해 온 교육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과 감동에 대해 들어봤다.

어렵풋이나마 알던 성인지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을 유심히 모니터링하며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여성플뿌리자치학교 워크숍이 끝나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고, 이를 계기로 신생 소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이 지역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무척 뿌듯했습니다.

-충남여성플뿌리 프로젝트에 참여 후-

올 한해 여성정책개발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충남의 성평등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원탁회의에서 느꼈던 감동은 아직 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도민이 만드는 충남의 성평등. 가정에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약속합니다.

-도민 원탁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 간에 소통을 통해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지역 사회에서 각자 느끼고 있던 고민과 목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성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이 끝나고-

충남의 젠더 거버넌스가 얼마나 절실한지, 이를 위해 지역 여성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여성, 적극적인 여성이 되어 내 주변, 내 마을부터 변화시켜가겠습니다.

-17주년 개원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여러 풀뿌리 모임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참고할 점을 모두 적어놨습니다. 좋은 사례는 우리 모임에도 적용해 앞으로 천천히 변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제2회 충남풀뿌리대회 활동 발표가 끝나고-

성미산 사람들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며 지금의 소모임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봤습니다. 갈등은 발전의 한 과정이며,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선진지 탐방 그 이후-

충남 성평등



북유럽에서 배우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로 성평등 정책 제도와 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

전국 16개 지자체 여성정책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활성화와 관련하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16년 5월, 이 두 나라를 방문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4명의 참여 연구원들은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의 과제를 발굴하고 비전을 찾는데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다.

Visit Report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스웨덴의 저출산 해결 및 가족 친화 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다. 스웨덴의 성공 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왔다.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양립 제고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아래 공보육과 공공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보육과 아동·가족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 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실현 방안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은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인권연구소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한다. 주요기능으로는 직장에서 출산·육아 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 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해 직장 내 일과 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주와 고용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 수요일
평등옴부즈만
(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



2016년 6월 2일 목요일
스웨덴 노동조합(UNIONEN)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의 사무직노동자노조연맹(TCO) 중 가장 큰 노조이며 사무직과 기술직 노조와 소매업과 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다. 총 근로자의 10%가 가입했으며, 55%가 남자, 45%가 여자이다. 업종과 경력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연봉 협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이 노조와 단체 교섭 조약을 맺고 있는 노조에서 직접 연봉 협상과 과정을 검토하기도 한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덴마크 노동조합(3F)

남녀고용 평등과 육아 휴직 확대

덴마크에서 가장 큰 노총인 LO 산하 최대 노조이자 덴마크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3F는 약 3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 중 27%가 여성이며 덴마크 국적이 아닌 회원도 12% 정도 된다. 현재 회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외국인 회원이 가입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성별 직종 분리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의사 결정직 진출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업자 지원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덴마크 여성 고용 및 일 가정 양립 정책 사례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와 정보, 교육, 문서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부로부터 정부자금을 비롯해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인 기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유럽연합, 덴마크 국제발전지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덴마크 인권연구소



2016년 6월 6일 월요일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

덴마크 일 가정 균형 관련 연구 프로젝트 사례

덴마크 사회부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 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 및 직업 연구부 사회정책 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부서가 있다.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도 다룬다. 재정은 정부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나 정도가 많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수량 조사, 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

After Visit

기획조정실 김영주 실장

성평등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던 시간이었다. 단순히 우리가 제도만 가져다 도입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성평등 의식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제도의 기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팀 송미영 팀장

오후 3~4시 정도의 환한 대낮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두 나라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는 편. 성평등 제도의 바탕에는 이 같은 의식이 깊게 깔려 있었다. 도서관에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는데, 육아 휴직 중인 그녀의 급여만으로도 온 가족 생활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도만 화려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해소된 모습에 많이 놀랐다.



연구팀 안수영 연구위원

각 국의 노조단체를 많이 방문했는데, 노조 사무실 안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모습이 독특하게 와 닿았다. 부모 휴가와 아동 수당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이었다.



교육·사업팀 태희원 팀장

아빠들이 유모차 끌고나와 아기를 돌보고, 이유식 먹이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던 곳. 특히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대한 역할이 동등한 분위기였는데, 이는 어려서부터 여성주의 교육이 잘 돼 있었기 때문.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더 특별한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그리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으로 가는 길

우리 도민이 직접 나섰다!

지난 11월 24일 덕산스파캐슬에서 1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30년까지 충남이 추진해야 할 성평등 정책을 도민이 직접 토의하고 선정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속에 선정된 과제는 충남의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도 하다.





66

토론 과정에서 각 과제의 중요도를 놓고
조원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
대부분의 조가 하나의 후보군을 집약할 수 있었다.

99

도민의 뜻을 담은 정책 실현

이번 도민 원탁회의의 주제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도민 100인의 목소리’로 향후 2030년 까지 도가 주력 추진해야 할 양성평등 대표과제를 도민이 직접 토의하고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100인의 참석자는 이곳에서 선정된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지각하며, 토론에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이채민 연구원이 이번 회의의 목표와 10대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에 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도민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긴장을 떨치지 못하는 참석자들을 위해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을 준비해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했다. 이제

본격적인 회의 시간. 대표과제는 총 세 단계를 거쳐 선정하는데 그 첫 단계가 조별 토의로, 100여 명의 참석자는 동그란 테이블에 10명씩 10개 조로 나눠 앉아 각 조에 제시된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위한 10대 추진 전략’ 중 하나에 맞춰 대표과제 후보군을 한 개씩 추출한다. 여기서 대표과제란 충남의 양성평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후 충남의 브랜드 사업으로 강조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말한다. 그다음 단계는 조별 발표 시간으로 각 조의 대표가 토의를 거쳐 선정된 대표과제 후보군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전자 투표를 한 후 세 개의 대표 과제를 선정한다.

함께 몰입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정책과 전략에

대한 조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들이 한 명씩 각 조에 함께 하며 정책과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충남을 대표한 도민으로 오늘 우리가 선정한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찾아 선정할 생각입니다.”

충남여성리더 모임의 신경미 씨는 오늘 토론의 중요성과 참석자로서 느낀 책임감을 담담히 전하기도 했다. 토론 과정에서 각 과제의 중요도를 놓고 조원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 대부분의 조가 하나의 후보군으로 집약할 수 있었다.

오늘의 토론이 충남의 미래를 만든다!

조별 선정 과제 발표

성평등정책 환경 조성

발표자: 윤금이 (아산시여성정책보좌관)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책과 사업을 기획할 때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시군마다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조



남녀동수 참여 실현

발표자: 박영란 (예산지역아동센터 대표)

10대 추진 전략 중 여성임파워먼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동수 참여 실현이 우선 과제라고 결정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전히 남녀 동수 비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분에서도 남녀동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2조



3조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확대

발표자: 이은주 (충남지역아동센터장)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전략을 놓고 노인 돌봄 공공성 확립과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확대 중 하나의 과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양육 환경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 때문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편안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4조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발표자: 신경미 (충남여성리더모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을 대표과제로 잡았습니다.
직장 여성 중에는 직장에서 임금이 적거나 처우가 좋지 않아
가정생활까지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경우 육아 휴직을 갔을 때
인센티브나 고가 점수가 삭감이 돼 복귀 후 다시 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오히려 출산한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5조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발표자: 엄소영 (좋은도시연구소 팀장)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지원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의식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조

도민의 성평등 의식 강화

발표자: 김도경 (충남도정 모니터단)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전략을 위해 '무지를 깨뜨리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남 지역은 성평등 의식의 확산이 정말 느리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도민의 의식을 바꾸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기본'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의 의식 차이를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7조

좋은 일자리 확대

발표자: 강규희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 팀장)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의 고용 평등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
두 가지 과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결정 짓기 힘들었는데요, 우리 조는 논의 끝에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생활을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발표자: 강희숙 (좋은도시연구소)

8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 배분 전략을 놓고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빈곤 노인이나 이주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위해서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력으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는 성인 3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올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해야 합니다.



9조

춤춤한 폭력 안전망 구축

발표자: 신승호 (충남 아산시 삼성고등학교 3학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춤춤한 폭력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치안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정책의 성인지적 관리 체계 구축

발표자: 권경숙 (서산풀뿌리여성연대 대표)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정책의 성인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화력 발전소가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 오폐수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정 오염 지역을 지정해 성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아나 임산부, 여성들에게 해가 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10조



충남의 양성평등을 위한 세 가지 대표과제

10개 조의 발표가 끝나고 곧이어 전자 투표를 통해 최종 세 개의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첫째는 좋은 일자리 확대, 둘째는 남녀동수 참여 실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세 개의 과제이다. 충청 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대표 과제가 도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만큼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되고 비전 수립 이후에도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탁회의는 충남의 성평등을 이루는 초석!

원탁회의를 준비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담당자를 만나
행사의 의의와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__ 오늘 원탁회의를 지켜 본 소감이
어떤가요?

A __ 너무 흐뭇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
히 올 초 도지사님께서 올해는 여성과
소수자 관련 정책을 인권적 측면에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셨습
니다. 이에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을초부터 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추
진하게 되었는데요. 양성평등 비전 위원
회를 구축해서 2차에 걸쳐 회의도 진행하고, 전문가 회의도 3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각 시·군을 순회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대 목표 10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

Q __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충남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A __ 오늘 도민들의 회의 장면을 보며 성평등에 대한 우리 도민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남여성의 높은 의식 수
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를 통해 성평등한 충남을 향한 도민의 뜨거운 요구를 느꼈습니다.

Q __ 2017년에는 충청남도는 어떤 과제를 계획하고 있나요?

A __ 우선 <충남 양성평등 5대 목표 10대 추진 과제>를 모두 추진하되,
이번 원탁회의에서 도민들이 뽑은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할 것입니
다. 내년에는 '젠더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공무원, 전문
가 모두 참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무엇
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교사 양성프로그램이나, 도민 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좀 더 파헤쳐 보기

❖ 수립배경

국내적 배경으로는 1995년 제정되어
20여 년 간 여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
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
정·시행되면서, 양성평등 관점을 전 영
역의 정책 전반에 접목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추진이 시대적 과
제가 되었다. 국제적 배경으로는 UN이
2015년 이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발
전 전략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
시하였고, 여기에는 성평등 달성에 관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등 국가 및 지역
의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성평등은 매
우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의 성평등 수준은
Level 4로 지역별 비교에서 2013년 이후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충청남도의
양성평등 비전의 수립은 현재 충청남도
의 낮은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응
전략과 실행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실질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요 내용

- 충남의 양성평등 관련 분야별 이슈와
미래 전망
- 충남의 양성평등 관련 분야별 현황 및
향후 과제
- 양성평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설정
-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세부과제 제안
- 추진전략별 충남의 양성평등 미래상

충남여성 힘 더하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우리 충남여성들이 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충청남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1999년에 설립한 충청남도 출자·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비전 · 목표 Vision & Goal

미션 Mission **성평등 충남, 행복한 여성**

비전 Vision **성평등 지역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충남의 정책 연구 · 교육기관**

전략

Strategy

- 지역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 교육기관
- 지역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 교육기관
- 내실있는 경영으로 탄탄한 연구 · 교육기관

목표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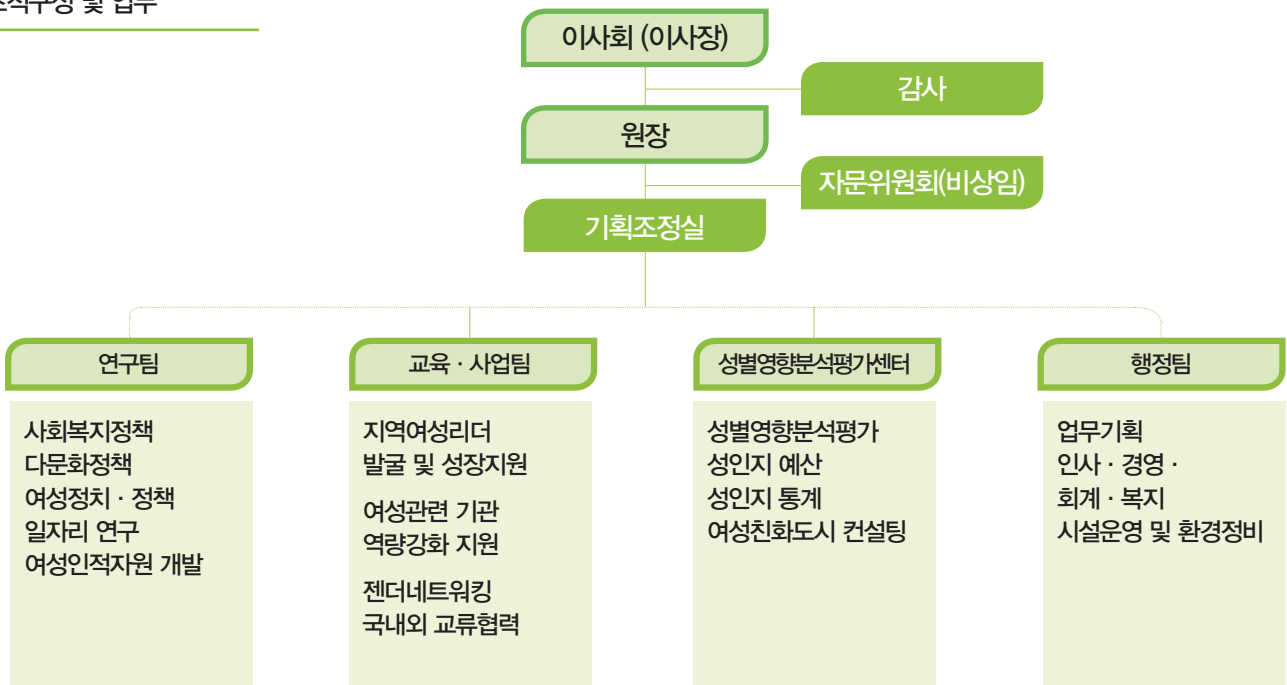
- 성평등 도정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수행
-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 내부 역량강화 · 고객중심 책임경영 강화



연혁 History

- 2016 _ 12. 01 • 제 9대 남궁영 이사장 취임
- 2016 _ 10. 01 • 제 7대 안정선 원장 연임
- 2016 _ 02. 02 • 제 8대 윤종인 이사장 취임
- 2015 _ 05. 10 • 여성부 성별영향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재지정
- 2014 _ 01. 08 • 공주시 상담원 교육시설 신고
- 05. 07 • 공주시 가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2013 _ 04. 26 • 제7대 송석두 이사장 취임
- 10. 01 • 제6대 안정선 원장 취임
- 2012 _ 08. 23 • 충청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 운영
- 2010 _ 08. 06 • 제6대 구분충 이사장 취임
- 09. 01 • 제5대 민경자 원장 취임
- 2009 _ 03. 19 • 제5대 이인화 이사장 취임
- 09. 19 • 제6대 구분충 이사장 취임
- 2008 _ 05. 13 • 여성부 성별영향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 2007 _ 03.29 • 제4대 김경숙 원장 취임
- 06.21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설치 · 운영
- 07.20 • 제3대 최민호 이사장 취임
- 2006 _ 02.13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설치 · 운영
- 2004 _ 06.24 • 제2대 유덕준 이사장 취임
- 2003 _ 11.25 •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설치 · 운영
- 2002 _ 06.18 • 지식 · 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신고
- 12.20 • 충청남도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 운영
- 2000 _ 03.23 • 제2대 박상돈 원장 취임
- 08.09 • 제3대 이재우 원장 취임
- 1999 _ 02.20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공포
- 06.24 • 법인설립 허가 및 제1대 조남계 이사장 취임
- 07.06 • 개원 및 김화중 원장 취임
- 1998 _ 08.22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 및 업무





쉽 없이 달려온 2016년

성과와 또 다른 도전에 대하여

2016년은 여성과 소수자, 인권에 집중하겠다는 도정의 방향이 공표된 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러한 충청남도의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정책 대상으로만 머물렀던 충남의 여성이 정책의 제안자이자 참여자, 평가자로 활동하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각 부서를 찾아가 올 한해 기억에 남는 성과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함께한 고딩이. 사람을 무척 좋아하나 간혹 '나 잡아봐라~'는 듯 도망갔다 나타나길 반복하며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는 밀당의 고수.

기획조정실 김영주 실장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은 크게 정책연구실과 행정실 두 개로 구분되어 운영되다 올봄 조직이 개편되면서 모두 기획조정실로 통합됐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개발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연구 및 교육사업과 행정업무 모두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2016년을 마무리하며 진행한 도민원탁회의는 충청남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자리 확대, 남녀동수 참여 실현,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까지 회의에서 선정된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08년 5월 1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충청남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개선 도출을 위해 각종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성인지 의식을 함양하

고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교육을 진행하며,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문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5년째, 올해 우리 팀은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제고 뿐만 아니라 환류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구팀

우리 팀은 충남의 여성, 가족, 다문화, 복지, 성평등 관련 연구를 하는 팀입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한 연구를 전략과제로 진행했고, 다문화,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연구 성과는 충청남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유학생 실태조사를 해서 유학생 관련 정책 예산에 반영이 되기도 했고, 이주민 콜센터 예산편성도 우리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은 짧은 경우도 있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시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처우 개선에 대해 연구했었는데, 올해 정책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육 · 사업팀

우리 팀은 성평등 정책 참여와 성평등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팀의 핵심 목표는 '충남에 사는 여성의 힘 기르기'입니다. 충남의 여성이 지역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실행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정책 참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여성의 의견을 취합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모임을 가진 여성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개인이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 인해 생활이 변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충남의 여성 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던 인큐베이팅 사업과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풀뿌리자치 학교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1기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와 행정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며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복지, 시설 운영 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서와의 소통이 중요하며, 연구 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우리 팀의 역할입니다.



[연구]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연구”

여성/가족분야 연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 여성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성의 현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수행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갑니다.

정책연구 01	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복지 시책 개발	현안연구 01
정책연구 02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여성가족정책 및 성인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 및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현안과제	현안연구 02

사회복지분야 연구

영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정책 연구와 사회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집단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사회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01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조사 및 정책 개발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복지 시책 개발	현안연구 01
정책연구 02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복지정책의 실천적 개입 및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한 현안과제	현안연구 02

다문화분야 연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충남도내 이주민의 인권 증진,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다문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한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수행 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도민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01	다문화가족 및 자녀,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민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정책개발	충청남도 및 시·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현안연구 01
정책연구 02	'다문화' 관점의 확산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신속한 정책반영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시급히 요구되는 다문화 관련 현황 및 요구조사 시책개발과 현안과제수행	현안연구 02

2016년 연구 리스트

[기본연구과제]

과제명	연구자
충남 청년세대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	안수영 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안수영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효과 연구	임우연 외
초국가적 가족으로의 변화에 따르는 정책 수요와 지원방안 연구	임우연 외
충남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송미영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우복남 외
충남 다문화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우복남 외
충남 여성 NGO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태희원, 조윤진
충남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최은희

[현안과제]

과제명	부여기관
2016년 직무성과계약과제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지표 검토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의원발의 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	도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실국별 대표과제에 대한 성인지관점의 컨설팅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충남도형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관점의 도입 필요성 검토	도 기획조정실
충남도 여성 일자리 필요사업 발굴 연구	도 경제산업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 검토 및 보완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직무성과 계약과제 성인지 검토의견 반영률 평가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책과제]

과제명	연구자
충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다문화감수성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적용방안	이채민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운영	이경하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지침(매뉴얼) 개발	김종철
충남 외국인 유학생 인권 실태조사	송미영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개정 방향	김종철
충남 외국인 주민 콜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	송미영
충남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양성평 등 의식제고 방안	최은희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책개선 환류점검: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김지영

[수탁과제]

과제명	발주기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
보령시 “농어촌 성평등 시범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보령시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연구	충청남도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서산시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주민요구조사	아산시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	충청남도

[교육 · 사업]

“지역의 여성 일꾼을 키우는 교육”

교육 · 워크숍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하여 충남 지역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다양한 집단의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여성리더
발굴 및 성장지원

분야별 지역여성들이 리더십을 갖고서 정책형성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여성 풀뿌리 소모임들의 내발적 에너지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풀뿌리소모임 성장을 지원합니다.

성평등 도정
실현에 기여

충청남도 공무원 및 다양한 도민들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충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지원합니다.

여성관련 기관
역량강화 지원

도내 여성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도내 여성관련 기관들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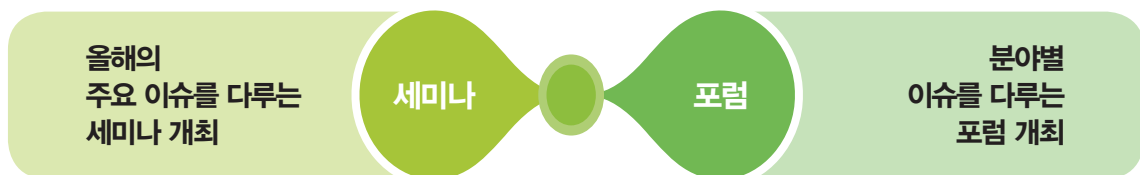
젠더 네트워킹

도내 지역여성 풀뿌리 모임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이들의 내발적인 에너지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또한 도내 지역여성, 공무원, 유관기관, 언론 등과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민의 살아있는 의견을 환류시키고 본원의 연구와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미나&포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정책형성과정에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충남도민의 삶과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어젠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긍정적 비판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학술연구 정보 및 인프라를 공유하여 본원의 내부 역량 및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인지 정책의 성과 제고와 도정의 성주류화 확산”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08년 5월 1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 정책분석 평가 지원 기관으로 지정되어, 충청남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개선 도출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공무원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성인지 의식 함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교육을 운영하며,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대상과제 제안
- 분석평가서 및 예산서 작성 과정, 정책 개선안 도출 등에 대한 상담·자문
- 지역별 전담컨설턴트 배정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적인 양질의 컨설팅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교육 지원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지방행정의 성 주류화 도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연구 수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제언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및 우수사례 발굴, 각종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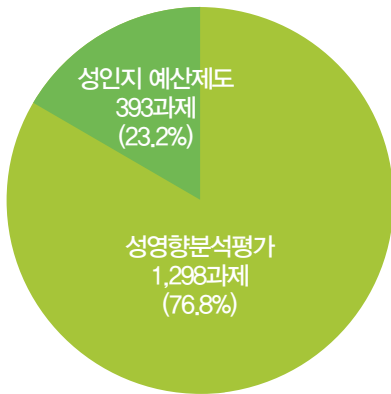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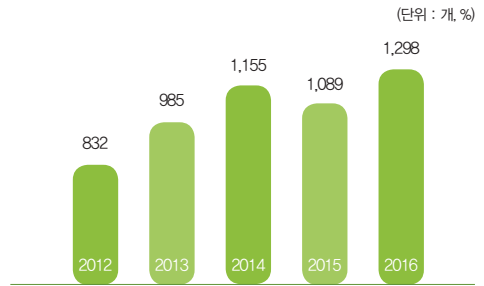


[2016년 컨설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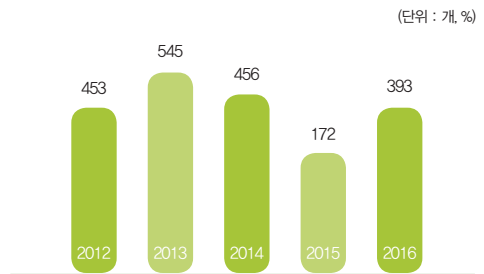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 1,298건(76.8%)
 성인지예산 393건(23.2%)으로 전체 1691건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 실적(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2012-2016)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현황(2012-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단위 : 개, 회)

구분	대상별 컨설팅 과제 수	부문별 지원 실적(회)				방법별 지원실적(회)			
		합계(회)	대상 과제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검토의견	기타 (종합결과 보고서 검토 등)	대면	서면 (GIA시스템, 메일, 전화 등)	
충남	소계	989	1,858	734	855	261	8	277	1,581
	법령	241	253	21	34	198	0	0	253
	계획	9	11	0	2	8	1	1	10
	사업	726	1,402	528	819	55	0	272	1,130
	기관	13	192	185	0	0	7	4	188
세종	소계	309	449	265	164	18	2	87	362
	법령	18	18	1	0	17	0	0	18
	계획	2	4	0	4	0	0	2	2
	사업	288	423	262	160	1	0	83	340
	기관	1	4	2	0	0	2	2	2
총계	소계	1,298	2,311	999	1,022	279	10	364	1,946
	법령	259	271	22	34	215	0	0	271
	계획	11	15	0	7	8	0	3	12
	사업	1,014	1,829	790	983	56	0	356	1,474
	기관	14	196	187	0	0	9	6	190

※ 2016. 12. 20. 기준

언론 속 성평등 충남

INSIDE NEWS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활동 시작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공주시 소재, 원장 안정선)은 13일에서 14일까지 양일 간 2016 충남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했다.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이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이 실제 도민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도민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 보고 개선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이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충남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의 본격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의 의미”, “현장 중심 모니터링 활동사례”, “지역사회를 바꾸는 정책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사업과 지표의 이해” 등 10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강의와 토론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지표를 들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모니터링 실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6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15년 도와 시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평등 개선 조치사항을 제출한 사업 71개를 선정하였으며, “성별 균형참여”, “접근성·안전성”, “접근성·편리성”, “편리성·가족친화” 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했다.

모니터링단 16명은 앞으로 3주간 도와 시·군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실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6 여대생 성인지교육' 실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31일 세미나실에서 충남도립대 여대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차세대여성의 성인지적 관점 및 긍정 리더십 함양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같이교육연구소 황금명륜 소장이 '현대사회 리더십과 인권 의식'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황금 소장은 "여성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적 구조와 의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경제적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주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금 소장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강의에서 '학습된 무기력과 회복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성공의 의미와 리더십 개념의 변화,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열망을 펼쳤다.

안정선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이 차세대 여성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은 지난 2014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도립대학교간 협약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여학생들의 긍정적인 리더십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안에서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2016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12일 개강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전성)은 오는 12일부터 '2016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치학교는 오는 12일 시작해 8월 30일까지 화요일마다 여섯 차례 열린다.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엔 1박2일 워크숍을 떠난다.

이번 교육은 '젠더 감수성에 기초한 성인지 정책의 이해', '지방자치와 여성 그리고 예산 이해'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섹션별로 보면 여성노동, 교육복지, 여성인권, 환경, 농업 등이다.

1박 2일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강좌를 들었던 지역 곳곳의 여성들이 각 도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토론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자는 총 30여 명으로 여성 활동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기타 지역정책에 관심 있는 여성 등이다.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교육인 만큼 작년에 참여했던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역 여성 리더들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교육생들을 위한 심화교육 역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신문] 변지은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평등 역량 UP!



지난 9월 21일(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도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16 시민단체 활동가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 이후 세 번째 열리는 이 교육은 그동안 도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이해 등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2016년에는 '지역, 여성, 성평등'을 키워드로 시민단체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공동대표는 "성평등·지역화 시

대, 시민단체 활동 다시 읽기"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삶의 문제를 마을의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의제를 선정하고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전반에서 시민단체와 여성풀뿌리 조직이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연결'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단체 & 여성풀뿌리, 톡톡!" 시간에는 교육, 문화, 청년, 청소년, 성평등, 좋은 정치,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단체와 지역 여성 풀뿌리 조직이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해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교육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홍성군 홍북면 소재)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치연대, 환경운동연합, 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회원단체와 아우누리, 청양행복여성네트워크, 서산풀뿌리여성연대 '옴니버스', 보령풀뿌리회 등 여성풀뿌리조직, 공익활동·사회적 경제 부문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 40여 명이 참여하였다.

[불교공뉴스] 이경 기자

'양성평등 충남 비전 2030' 중점 추진

충남도가 '양성평등 충남 비전 2030'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정책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강조한 '여성·소수자 인권 관점에서의 도전 재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속가능한 도정발전과 도정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충남도는 2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내부의 변화 유도를 위해 도청 문예회관에서 양성평등 관련 특강을 가졌다. 안정선 도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충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양성평등 정책'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도정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성평등 충남 비전 2030'은 여성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

권 증진 방안에 대해 2030년까지 3~5년 단위 세부 실행 계획으로 채워진다.

충남도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비전 수립을 위해 양성평등비전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 비전연구TF팀 등을 구성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양성평등비전위원회는 15명 안팎의 전국 및 지역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해 비전 수립의 방향 및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50여 명이 8~10개 분야별로 구성돼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등에 힘을 보탠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정책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30일 세미나실에서 15개 시·군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기획조정실장의 2016년 연구·교육사업 소개 및 <양성평등 충남 비전 2030>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 시·군 별로 추진되는 여성정책관련 협력사항을 제안하는 자리가 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군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충남의 여성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위원의 자격기준 완화로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여성친화도시 사업발굴이 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모색되고 지원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정책분야를 여성과 인권의 관점으로 재점검하는 도정의 방향이 시·군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수료식

지난 5월 11일(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공주시 소재, 원장 안정선)에서는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 '완주'를 축

하하는 수료식이 열렸다. "성인지적인 관점이 달라졌고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정책은 일부 사람들만의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의 진지한 소감 발표들도 이어졌다.

15명의 교육 수료자들은 이미 여성 농업인으로, 학부모 모임 이끔이로, 평생교육 강사로, 공공보육 전문가로 도내 각 시군에서 '삶 정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다. 각자의 일만으로 충분히 바쁘고 바쁘다는 것을 잘 알기에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7일 과정을 끝까지 완주한 서로에게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은 "이번 교육의 뜨거운 열기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현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향후 이 여성들이 충남도의 성평등 정책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은 성 주류화 제도, 즉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실행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책을 보는 성인지 관점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지방자치와 지방예산제도의 이해,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체계와 지표 이해, 컨설팅 실습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으며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7일 간(48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한인협] 김효빈 기자

원장 | 안정선 (행정학 박사,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구분	이름	직위(직책)	전공분야	업무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문화사회학	연구·교육·행정팀 업무 총괄 여성·가족정책, 여성인권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교육공학	여성친화도시
연구팀	최은희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송미영	선임연구위원(팀장)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안수영	연구위원	노동사회학	일자리연구, 여성인적자원개발
	태희원	연구위원	여성학	젠더 연구
	김지영	연구위원	여성학	여성노동분야 연구
	권수진	연구조교	-	연구지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팀장)	언어문화학	교육·사업팀 총괄
교육·사업팀	조윤진	연구원	사회복지학	교육·연구구성사업
	이채민	연구원	사회학	교육·연구구성사업
	이경하	연구원	사회학	대외협력·홍보사업
	허선영	연구조교	-	연구 및 교육사업 지원
	임우연	연구위원(센터장)	가족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연구·컨설팅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박민아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턴트 운영 및 관리, 워크샵·포럼 운영지원
	윤수진	연구조교	-	연구 및 교육사업 지원

[행정실]

이름	직위(직책)	업무
김기석	행정팀장	행정팀 업무기획·검토조정, 인사, 이사회, 경영평가관리
김매화	행정원	일반회계 예산 결산, 기금운영, 세입세출외 운영
박선미	행정원	계약, 용역사업, 복지제도, 직원교육, 홈페이지관리
최영락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차량관리
호광자	행정원	식당운영 및 관리
이원우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소방훈련, 전산·개인정보관리
박한나	행정원	행정업무보조
김진순	행정원	환경관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복지사회구현',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우리 충남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충남인
여성인

Vol. 35